

<2022년 5월 18일 수요일말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셨다

[시대 성경]

너를 돕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은
나 여호와와 목적을 이루는 데 쓰라고 준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고,
필요한 때마다 참으로 너를 돕고,
성령과 함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함은
나의 목적을 배웠으니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쓰며,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라고 준 것이니라.

너만을 위해 살라고 참으로 돕고 주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만물과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라고
참으로 돕고 주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금주 주일말씀>은

<섭리역사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 금주 말씀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를 조상 때부터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각종으로 돕고 함께해 주시고,
죽음과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사랑해 주심>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잘되니,

<자기가 더 잘 살고, 더 기쁘고, 더 편하기 위해
자기 삶을 위해서만 쓰고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영원한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고 산 자들>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 으로 들릴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산 자들>은 가슴이 뜨끔할 것입니다.

-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대>에 따라 ‘어떤 삶’ 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인’ 과 ‘종의 입장’ 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각종 은혜〉를 받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 신약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모’ 와 ‘자녀의 입장’ 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고 사랑하면서
‘경제 문제’ 도 해결해 주고, ‘땅’ 도 사 주고, ‘집’ 도 지어 주고,

결혼하게 되거나 독립하게 되면, 잘 살라고 내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잘 사는 모습’ 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 이와 같이 <신약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부모의 입장’ 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녀’ 같이 대해 주며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녀의 주권’ 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 시대의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자녀권의 축복과 은혜’ 를 받고 ‘이상’ 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약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 이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마지막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의 목적>,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신부’ 같이 대하면서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를 선조 때부터 택하시어
어렸을 때부터 ‘각종 필요한 것들’ 을 도우시고,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은혜와 축복’ 을 주시다가,

때가 되어 ‘시대 말씀’을 듣고 섭리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삶〉을
‘목적’으로 두고 행하셨습니다.

- 과거 〈구약 때〉나 〈신약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와서 알게 되었으니,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사랑〉을 이루는 데만 쓰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녀의 주권권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시대〉입니다.

-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사랑하며 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성약 섭리역사라는 집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데>만 쓰면,
 그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니 실망하시고,
 <자기>도 ‘실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영원토록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너’를 위해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몸>도, <마음>도 ‘너’를 위해 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 <이 시대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만 써야 됩니다.

〈말씀〉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쓰면 안 됩니다.

- 선생님은 〈하나님께 배운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쓰고, 섭리사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로 인해 〈섭리역사〉가 이같이 크게 됐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자기 육체〉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섭리사도 더 창대하게 됩니다.

- 〈시간의 축복〉도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위해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 좋은 시간〉을

〈자기 육체를 위한 시간〉으로만 쓰고 끝내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 쓰라고 ‘시간’을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쓰니 얼마나 심정이 상하시겠습니까.

-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려고
<신앙이 어릴 때부터 택하여 돕고 길러 온 자들>을
‘자기를 위해 쓰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개성에 맞게 온전하게 쓰이게 해야 됩니다.

- 자기가 전도했다고, 혹은 자기가 관리했다고
<생명>을 ‘자기 목적’을 위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잘못 쓰면,
<호랑이나 치타같이 쓸 자>를 ‘고양이’ 같이 쓰고 말게 됩니다.

- <본인>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육신 일생> 귀하게 쓰이고,
<그 영>도 ‘황금천국’에서 귀하게 쓰입니다.

-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쓰이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좋게 하기 위해 쓰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고,
<생명 전도>도 더 잘됩니다.

-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근성>입니다.

<이 근성>을 못 고치면,
점점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로 ‘조금씩’ 자기를 위해 쓰고 살다가,
<나중>에는 ‘더 큰 것들’도 자기를 위해 쓰게 되고,
‘자기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야만
‘자기중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해서 살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옆에 계셔도 ‘같이 사는 삶’을 못 삽니다.

<자기>가 시간을 다 써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살 시간>이 없게 됩니다.

- <시대 말씀>도, <시간>도, <생명>도, <자기 삶>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 쓰고 살아야 합니다.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는
<최고로 위대한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 〈창조 목적의 삶〉은
〈삼위일체만 절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참으로’ 도우시니 할 수 있습니다.

- 〈육〉도 〈영〉도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자기만족〉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쓰면,
〈하나님의 뜻〉도, 〈이상세계〉도, 〈영원한 사랑〉도,
〈황금천국〉도 못 이루게 됩니다.

-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 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 〈자기 몸〉은 ‘하나님의 신령한 육의 전’입니다.

고로 누구든지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자기 것>이 되고, <사탄의 것>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됩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 <자기 육신>이 ‘말씀’을 깊이,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대로
 <육>도 만들어져서 ‘그 차원’에서 누리고 살게 되고,
 <영>도 ‘그에 해당되는 형체’로 만들어져서
 ‘그에 합당한 황금천국의 위치’에서 살게 됩니다.

<육>도 <영>도 만드는데

‘그 차원’에서 ‘삼위일체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쓰면서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전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의 사랑>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더 ‘참으로’ 돕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